

첫째, 정치체제의 변화와 통치공간의 이동, 둘째, 도시지역의 확장과 함께 전차와 자동차 같은 새로운 교통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근대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셋째, 근대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의 신축 또는 변용이다.

대한제국기 한양의 도시와 건축에 대하여 한국역사 분야와 도시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각각의 연구들은 한양의 도시경관을 정의하고 그 근대적 변동을 서술하는 바탕이 된다. 이를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통치의 중심이 이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도로서의 도시구조 재편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4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질서를 바탕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육조거리와 시전행랑으로 구축되었던 도시구조가 경운궁과 정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에 진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구상과 도로개설 시기의 논쟁, 그 연장선상에서 일제강점기에 추진된 도시구조의 재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⁰⁵

둘째, 1898년 경희궁 흥화문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전차궤도의 건설로 시작된 근대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의 도시경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1907년 송례문 좌우 성곽의 철거를 시작으로 전차궤도와 도로의 확장으로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형태가 해체되고 도시영역이 확장되는 시점을 서술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1901년에 건설된 돈의문 밖 서대문정거장에서 1925년 송례문 밖에 경성역이 건설되기까지 진행되는 한양도성 서쪽 외곽지역의 도시경관 변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다.⁰⁶

셋째, 대한제국기에 황제국가에 합당하게 황궁으로서 경운궁이 건설되고, 아울러 근대국가로서의 통치시설과 기념시설이 새롭게 건설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아울러 외교와 선교시설, 교육과 종교시설, 경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지적의 변동과 새로운 시설의 출현,